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 대학생의 주거실태 및 주거만족도

- 전북대학교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

The Housing Conditions and Housing Satisfaction of Chinese College Students Studying in South Korea

- Focus on Chinese Students i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최병숙*·박정아·노정옥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 인간생활과학연구소·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Choi, Byungsook·Park, Jung-A·Rho, Jeongok

Dept of Housing Environmental Design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BNU.

Dep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CBNU.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ousing conditions and housing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in S. Korea, and identified effective factors for related housing design. Chinese students at CBNU participated in this survey from November to December in 2011. A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200 student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is survey with 147 surveys providing useful data f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linear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d the data with SPSS 12.0. The results are as follow. 1) Many Chinese students received housing information from discussion with acquaintance. They lived together 2 students in one-room or dormitory. Monthly rental was about 240,000 won, and they found the living conditions a burden. 2) They are unsatisfied with food, the lack of a refrigerator, and non availability kitchen facilities. These factors are considered in planning for Chinese students housing. 3) For the most part, they a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housing environment, although there is a need to improve health related housing environment factors, including sunlight, noise, and indoor air. The effective residential factors to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are dwelling space and size, space organization and floor plan, kitchen-toilet-bathroom facilities, sunlight, and safety from natural disasters. The effective neighborhood factors identified include access to natural environment, community facilities, parks, noise, and commuting time. 4) Subjective factors played a larger role in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than did objective factors such as gender and types of house.

Keywords: chinese students, housing, housing satisfaction, residential satisfaction, neighborhood satisfaction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국제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유학생들이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에 따르면(Cui, 2008) 중국 유학생은 외국 유학생의 6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유학

* Corresponding Author: Choi, Byungsook,
Tel: 82-63-270-3840, Fax: 82-63-270-3649
Email: housecbs@jbnu.ac.kr

생은 1994년 한중문화교류협정이 체결된 이후 꾸준히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6년대 초기 300여명에 달하던 중국 유학생은 2001년 3,221명, 2006년 20,080명으로 증가하였다(Cui, 2008; Ha, 2008). 이 현상에 부합하여 전북대학교에서도 중국 유학생이 2008년부터 국제교류부가 신설되어 중국유학생의 입학관리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2012년 4월 기준 843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외국으로 공부를 결심하는 유학생은 가장 먼저 해외에서의 거처를 마련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즉, 유학생에게 주거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사안이며, 주거가 해결되어야 안정된 상황에서 공부에 전념하고자 하는 목적의 일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비단 타국의 유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 타도지에서 수도권으로 유학 온 대학생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유학 온 대학생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타국에서의 유학생은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됨에 따라 안정된 생활을 위해 주거의 관심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미국과 영국에서도 집을 떠나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는 학생의 학업성취 및 성공, 성적미달,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ow & Healey(2008); Pitkethly & Prosser(2001); Delgadillo & Erickson(2006)). Lee(2000)도 한국의 지방대학 유학생들에게 주거는 숙식의 제공 및 학교 생활 이외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며, 대학생활을 시간적으로도 효율적 지원하는 곳으로써 대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주거 특히 유학생의 주거는 단순히 기숙사형태 이외 학생의 요구를 수용한 다양한 주거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올바른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들의 주거에 관한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주거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주거 현황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러한 주거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 유학생의 주거만족도를 통해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3. 선행연구고찰

1) 대학생 주거

대학생에게 주거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그들의 대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Chow & Healey(2008)가 영국의 대학생 주거 연구에서 인용한 Pitkethly & Prosser(2001)의 주장에서 찾아보면, 집을 떠나 생활하는 대학 신입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성적미달이 되는 것은 지적인 어려움의 문제보다는 물리적 환경과 같은 주거의 적응 문제 때문이라고 하였다. Delgadillo & Erickson(2006)은 학생의 주거 상황이 학업성취 및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불건전하고 불안정한 캠퍼스의 주거 상황을 간과함으로써, 학생들은 대학의 캠퍼스 주거보다 캠퍼스 밖의 주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Lee(2000) 연구에서도 지방대학 유학생들에게 주거는 숙식의 제공 및 학교 생활 이외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며, 대학생활을 시간적으로도 효율적 지원하는 곳으로써 대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였다.

한편 한국 대학생 가구의 주거형태는 대학의 기숙사 주거와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개인 생활형 주거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하숙형 주거가 있다(Han & Yoon, 2011; Lee, 2000; Ha, *et al.*, 2011). 대학의 기숙사를 제외하면 캠퍼스 밖의 주거이며, 현실은 대학의 기숙사 수용 능력이 높지 않아 유학생들은 캠퍼스 밖의 주거를 선택하여 생활하는 실정이다. 서울지역 대학교의 지방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20% 미만이며(Han & Yoon, 2011), 전북대학교의 경우 중국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36%이다. 이러한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많은 유학생들이 캠퍼스 밖의 대학가 주변에 있는 주거시설을 선택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대학가 주변의 주거시설 중 하숙형 주거는 지역의 재개발로 인하여 최근 사라져가고 있고, 과거 하숙촌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소형주거 건설로 대체되고 있다(Ha, *et al.*, 2011). 특히 지방 대학생 1인가구를 위한 주거유형 중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룸형의 주거공간은 8평 미만의 규모에 1-2인이 거주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위치는 학교와는

도보로 10분이내의 통학거리에 있으며, 학생들은 취침공간, 조리 및 식사공간, 위생공간을 최소 요구공간으로 제시하였고, 세탁 및 건조공간, 현관의 진입공간, 서비스공간은 취약하여 채광, 통풍, 환기의 확보, 공간크기 확보, 보안시스템 확보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Kim, *et al.*, 2010). 또한 Park(2007)은 지방 대학생의 원룸에 대해 차음 및 방음상태를 가장 문제를 제시하였고, 청결상태, 프라이버시 보호 및 방법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측면에서 불만을 제시함으로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생 가구의 주거현실에서 본 연구는 기숙사 및 대학교 주변의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즉, 중국유학생의 관점에서 주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주거 만족도

국내에서 주거 만족도는 물리적 단위주택을 중심으로 실내와 실외 공간 그리고 단지 환경가치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후 평가의 측정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Lee, 1985; Kim, 1988; Choi & Jeong, 2008; Jang, 2010). 그리고 국내외의 주거행동을 다루는 분야에서 주거 만족도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이사 혹은 이사하려는 의도 그리고 개조와 같은 주거조절행동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영향 요인으로 다루었다(Sinai, 2001; Fang, 2006). Yang & Oh(1996)는 주거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주거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 기준의 주거가치 개념을 도입하여 주거만족도와 관련성을 연구하였고, 주거가치가 주거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주거만족도 역시 주거에 관한 의사결정행동을 반영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Kim & Seo(2008)는 거주후 평가와 주거조절행동의 요인을 결합한 시각에서 주거만족도를 다루었다. 즉, 거주자는 주거를 획득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자신의 주거를 평가하는데, 대개 초기에는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만이 생기고 더 나은 주거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조절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주거만족도가 주거조절의 영향 요인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이외 거주자의 가족, 사회적 경제적 배경, 가치관, 동기 등의 요인도 함께 주거조절에 영향을 끼친다.

한편 주거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요인은 Jang(2008)에 따르면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객관적 특성 중 많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소유형태는 주거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Elsinga & Hoekstra (2005)의 연구에서도 소유형태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다르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임대로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프랑스의 주거만족도를 연구한 Fleury-Bahi, *et al.*(2008)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장소 정체성이 높아져 주거만족도가 커진다고 밝히면서, 거주기간은 장소정체성을 통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아파트 주거만족도 연구에서는 가장의 연령, 1인당 침실수, 가족생애주기, 발코니면적, 노후년수, 침실수, 화장실수, 주거동 형태가 아파트 주거만족도의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주관적 특성으로는 물리적 특성 중 주택의 질적 수준, 주방의 편리성이 영향 요인이며, 사회적 특성 중에는 주택의 경제적 가치와 프라이버시가 설명력이 높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Jang, 2008). 원룸형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유지관리에 관한 주거만족도 연구에서는 보증금, 월세 및 건축경년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Kang & Kim, 2009). 한국의 대학생 원룸 주거에서 주거만족도와 관련 요인은 주거특성으로 나타났다. 즉, 원룸의 크기, 부엌공간의 분리, 책상·책장, 불박이장, 신발장의 가구 구비, 냉방시설 및 인터넷 지원여부가 대학생이 거주하는 원룸의 주거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7). 그 외 미국 대학생의 주거를 연구한 Delgadillo & Erickson(2006)는 재계약 의지, 보증금 반환액, 주변의 청결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주거만족도를 높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로 볼 때 주거만족도는 주관적 평가와 주거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다. 그리고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자 및 주거환경의 객관적 요인은 가장 연령, 침실수, 가족생애주기, 소유형태, 거주기간, 보증금, 월세, 건축경년으로 나타났고, 대학생 주거에서는 면적 및 공간수, 가구·냉방시설·인터넷 지원, 방과 부엌공간 분리, 재계약 의지 및 청결도가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II. 연구방법

1. 설문지 내용 구성

설문의 내용은 조사학생의 성별과 학년, 경제적 측면에 관한 일반사항, 주택 및 주거의 일반사항, 주택 내부시설 현황, 주택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Table 1 참조>. 그리고 주택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10년 주거실태조사표에서 다루는 구조, 내부시설 및 음, 빛, 열, 공기의 실내 환경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Kim & Jeong(2003)의 연구에서 대학생 주거에 적합한 실내환경, 실내평면구성 및 외부시설 이용 측면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Park(2007)에서 임대료 관련 측면 및 주변의 청결 관련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최근 자연친화적 관점이 부각됨에 따라 자연환경에 관한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였다.

주택 및 주변환경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불만족, 2점=불만족, 3점=보통, 4점=만족, 5점=매우 만족)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주택 만족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9$, 주변 환경 만족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0$ 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 조사 시 한국어 사용 및 의미 이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국어로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중국어 번안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주거환경학 전공자 유학생이며 한국에서 5년간 생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담당하였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의 대상은 연구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에 대한 조사는 중국유학생 기숙사를 방문하여 사전 허락을 받은 후 유학생이 모여 있는 교육시간 및 식사시간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비기숙사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에 대한 조사는 주거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중국유학생 중 비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조사하고, 다시 그들의 친구를 계속 소개받아 조사하는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고,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시에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5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는 제외하고 최종 147부를 통계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일반 특성 및 주거 특성을 나타내는 명목 변수를 주거만족도의 종속변수와 회귀분석하기 위하여 가변수 처리하였다.

3. 응답자 일반사항

중국유학생은 남학생 49명(33.3%), 여학생 98명(66.7%)이 설문에 응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5명(3.4%), 2학년 17명(11.6%), 3학년 68명(46.3%), 4학년 50명(34.0%), 대학원생 7명(4.8%)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유학생의 경제적 상황은 부모님께 생활비를 조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여 생활을 하는 경우가 62명

<Table 6> Items of Questionnaire

Items	Questions	Contents
Socio-Demographic	5	gender, grade, economic condition, monthly living expense, length of staying in S. Korea
Housing Characteristics	10	housing information, resettlement funds in S. Korea, types of house, ownership, living location, distance from school, rental, size of dwelling space, dwelling years of current house, moving experience & number of moving in S. Korea,
Interior Space Use	4	Kitchen arrangement, kitchen space use, bathroom arrangement, bedroom space use
Residential Satisfaction	9	size, kitchen-toilet-bathroom facilities, floor plan, soundproof, indoor air, sunlight, rental, visual privacy, safety in disaster
Neighborhood Satisfaction	11	market, hospital, public institution, community facilities/park, public transportation, commuting hour, security, outdoor noise, cleanliness, neighbors relationship, natural environment
Housing Satisfaction	1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4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조달받는 생활비로만 생활하는 학생은 47명(32.0%),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하는 학생이 33명(22.4%)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한 달간 소비하는 총생활비는 평균 약 448,862원으로 파악되었으며, 30만원에서 50만원의 생활비 소비 범위에 약 53.5%의 학생이 분포하고 있고, 최대 300만원, 최소 2만원의 생활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거주한 기간을 파악한 결과 평균 2.58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소 1년 미만에서 최대 13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거주한 학생 1명은 1999년부터 거주하였으며, 2011년 이후 거주한 학생이 전체의 32.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거주하기 시작한 학생이 87.5%(100명)로 대부분이었다.

III. 조사결과 및 해석

1. 중국유학생의 주거실태

한편 유학생은 한국에 정착할 당시 주택에 대한 정보는 주로 ‘아는 중국 사람을 통해서’ 집을 구한 것이 61명(4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숙사, 신문광고, 친구 등으로부터 파악한 기타의 경우가 33명(22.4%), 학교 측으로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한 경

우가 23명(15.6%), 부동산중개업소 소개를 통해 집을 구한 경우가 11명(7.9%),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여 집을 구한 경우가 11명(7.9%)로 나타났다. 79.2%의 유학생은 2010년 이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유학생의 52.2%(70명)는 한국에서 이사경험이 있었고, 평균적 약 2.59회 이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거주년수에 대비하여 분석해보면 평균 약 1.16회/년 이사로 매년 집을 옮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한국에 처음 와서 정착당시 주택을 구하고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를 구입하는 등의 주거관련 비용은 평균 238,7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기숙사가 83명(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원룸이 46명(31.3%), 주택/아파트/고시원 등의 기타 주거시설이 18명(12.2%)이었다. 83명(56.3%)의 기숙사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임대형식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47명(32.0%)의 학생은 보증금+월세로 임대료를 지불하였고, 10명(6.8%)의 학생은 무보증금+월세로 임대료를 지불하였으며, 9명(6.3%)의 학생은 전세 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월세의 경우 월세 보증금으로는 평균값은 약 1,481,914원이고 중앙값은 1,000,000원, 최대값은 2천만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월세는 평균값이 약 244,255원이며, 중앙값은 250,000원, 최대값은 350,000원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월세 평균값은 215,000원이며, 중앙값은 210,000원, 최대값은 300,000

〈Table 9〉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Levels	Frequency(%)	Total
Gender	Male	49(33.3)	147(100.0)
	Female	98(66.7)	
Grade	Freshman	5(3.4)	147(100.0)
	Sophomore	17(11.6)	
	Junior	68(46.3)	
	Senior	50(34.0)	
	Graduate	7(4.8)	
Economic Condition	Parents Supply	47(32.0)	147(100.0)
	Part-time Job	33(22.4)	
	Parents+Part-time Job	62(42.2)	
	Others	5(3.4)	
Monthly Living Expense(n=145)		Mean=448,862.07 won Maximum=3,000,000 won Minimum=20,000 won	
Length of Staying in S. Korea(n=137)		Mean= 2.58 years Maximum= 13 years Minimum= under 1 years	

〈Table 10〉 Housing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Levels	Frequency(%)	Total
Housing Information	Introduction of a Chinese acquaintance	61(43.9)	139(100.0)
	House agent	11(7.9)	
	Searching internet	11(7.9)	
	School assistance	23(16.5)	
	Others(dormitory, newspaper, friend)	33(22.4)	
Dwelling Years of Current House	before 2009	10(8.8)	120(100.0)
	2009	15(12.5)	
	2010	35(29.2)	
	after 2011	60(50.0)	
Moving Experience in S. Korea	Yes	70(52.2)	134(100.0)
	No	64(47.8)	
Types of House	Dormitory	83(56.5)	147(100.0)
	One-room in multi-families house	46(31.3)	
	Others(detached house, apartment, cocoon house etc.)	18(12.2)	
Ownership	Yearly rental deposit	9(6.1)	146(100.0)
	Monthly rental with deposit	47(32.0)	
	Monthly rental with no deposit	10(6.8)	
	Others(almost dormitory)	80(54.8)	
Living Location	Ground level	141(97.9)	144(100.0)
	Under or roof-top level	3(2.1)	
Distance from School	Within 5 minutes.	29(19.7)	147(100.0)
	5-10 minutes	44(29.9)	
	10-20 minutes	58(39.5)	
	20-30 minutes	12(8.2)	
	Over 30 minutes	4(2.7)	
Number of Moving in S. Korea(n=70)		Mean=2.59 Maximum=7 Minimum=1	
Resettlement funds in S. Korea(n=102)		Mean=238,700 won Maximum=1,000,000 won Minimum=0 won	
Size of Dwelling Space(n=100)		Mean=33.75m ² (10.21pyung) Maximum=148.76m ² (45pyung) Minimum=3.3m ² (1pyung)	

원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대개 고시원 주거이름 오히려 월세가 더 낮았다.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대부분 지상에 위치하며 (141명, 97.9%), 일부 반지하 및 옥상의 옥탑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었다(3명, 2.1%). 유학생의 거주공간 규모는 평균 33.75m²(10.21평)으로 파악되었으며, 60.0%의 학생은 16.53m²(5.0평)에서 33.06m²(10.0평)사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6.0%의 일부 유학생이 49.59m²(15.0평)이상 규모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하는 곳의 위치는 학교에서 걸어서 10-20분 이내가 58명(39.5%), 5-10분 이내가 44명(29.9%), 5분 이내가 29명(19.7%)로 많은 유학생들은 20분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은 주거공간을 주로 2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었

고(78.9%), 혼자 단독으로 주거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20.4%로 나타났다. 부엌공간은 35.3%가 침실과 개방형으로 배치되었다고 하였으며, 14.4%는 부엌이 침실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엌공간을 단독으로 나만 사용하는 경우가 38.0%으로 파악되었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부엌을 사용하는 경우가 10.2%로 나타났다. 한편 부엌공간의 배치나 부엌공간 사용 측면에서 부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50%였다. 이는 기숙사 거주 유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56.5%이고, 기숙사의 경우 부엌이 없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욕실은 주로 화장실과 하나의 공간으로 결합된 형태가 84.5%로 대부분이었으며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된 형태(7.0%)와 화장실만 갖춘 형태(4.9%)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로 유학생의 식생활 현실을 살펴보면, 비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식사를 해결하였고 비용 및 맛의 문제로 외식은 거의 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기숙사 제공식으로 식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중국 유학생이 생활하는 캠퍼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시장,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캠퍼스에서 도보로 버스정류장까지 15분정도 이동한 후 버스로 1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많은 학생은 캠퍼스에서 도보로 20분내 접근이 가능한 학교 주변의 농협마트를 이용하거나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 식품점이 구정문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 1곳이 있었으나 조사할 당시 폐업하였고, 중국유학생들이 이용하는 중국식 전문음식점은 구정문 주변에 1곳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병원은 대학병원이 캠퍼스에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하다. 동사무소는 정문에서 도보로 15-20분 이내 거리에 있으나, 시청이나 경찰서는 버스로 1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대학 주변에는 소리문화의 전당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캠퍼스에서 도보로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캠퍼스에 인접하여

〈Table 12〉 Interior Space Use of Respondents House

Variables	Levels	Frequency(%)	Total
Bedroom Space Use	1 person use	29(20.4)	142(100.0)
	2 persons use	112(78.9)	
	over 3 persons use	1(.7)	
Kitchen Arrangement	Separates from bedroom	20(14.4)	139(100.0)
	Opens to bedroom	49(35.3)	
	No available kitchen space	70(49.4)	
Kitchen Space Use	Only single resident use	52(38.0)	137(100.0)
	Common kitchen for multi-residents	14(10.2)	
	No available kitchen space	71(51.8)	
Bathroom Arrangement	Bathroom & toilet in one space	120(84.5)	142(100.0)
	Bathroom separates from toilet	10(7.0)	
	Just toilet equipped	7(4.9)	
	Others	5(3.5)

<kitchen opens to bedroom>

<kitchen in bedroom>

<kitchen separates from bedroom>

<bathroom & toilet>

[Figure 1] Interior Space Conditions in One-room House around Chonbuk National Univ.

[Figure 2] Interior Space Conditions in Dormitory of Chonbuk National Univ.

[Figure 3] Residential Satisfaction Scores

삼성문화관과 체육관이 위치하고 있어 공연 상영이 가능하다. 또한 인근은 건지산, 덕진연못 등의 자연 환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다. 캠퍼스에서 버스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상황으로, 캠퍼스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15분이상이 걸리며, 특히 기숙사의 경우는 택시나 버스의 접근이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2. 중국유학생의 주거만족도

1) 주택만족도

유학생들은 거주하는 주택 만족도의 평균값을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모두 보통 이상의 만족을 나타내었다. 평면의 구조 3.52점, 주택 규모 3.46점, 부엌·화장실·목욕 시설 3.41점, 일조·채광의 빛 환경 3.39점, 주택의 재해 안전성 3.39점, 시각적 프라이버시보호 3.38점, 환기·통풍의 공기환경 3.34점, 임대료 3.32점, 소음·방음의 음환경 3.17점의 만족도로 나타났다[Figure 3 참조]. 음환경에 대한 만족이 주택의 다른 만족도 변수에 비해 낮았다. Kim, et al.(2010)의 청주지역 대학생의 소형집합주거 연구에서는 채광·환기·통풍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Park (2007)은 차음 및 방음상태를 가장 불만스럽다고 하고, 프라이버시와 방법을 지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 유학생들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값이 보통 이상(3.51점)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각각의 주택 만족도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한 후, 주거 전반 만족도와 9개의 주택 만족도 변수를 단계적 선택방식의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5개의 모형이 제시되었고, 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은 모형을 선택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65.1%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중국유학생은 주거 전반 만족도에 규모, 평면의 구조, 시설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조·채광의 빛환경 그리고 재해 안전성으로 파악되었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음 환경과 시각적 프라이버시, 공기환경 및 임대료는 만족도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변 환경 만족도

중국유학생들은 거주하는 곳의 주변 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만족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보통이상의 만족도로 파악되었다. 집주변의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3.42점, 도둑 및 청소년 비행 등의 치안문제 안전 3.40점, 이웃과의 유대감 3.37점, 주변 자연환경(산, 강, 호수, 시내, 하천 등) 3.34점, 병원·의료시설 등의 접근 용이성 3.27점, 문화시설 및 공원 등의 접근 용이성 3.25점, 자동차 경적 및 집주변으로 부터의 소음 3.21점,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 용이성 3.17점, 시청·동사무소·경찰서 등의 공공기관 접근 용이성 3.16점, 마트·시장 등의 접근 용이성 3.16점의 만족도로 나타났다 [Figure 4 참조]. 교통, 공공기관

및 마트 등의 접근성은 다른 주변 환경 만족도 변수에 비해 낮았다.

주변 환경의 만족도 변수가 주거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주거 전반 만족도 및 주변 환경 각각의 만족도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소음과 통학시간, 자연환경과 통학시간, 자연환경과 대중교통 접근성은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관계를 제외하고는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하였다. 주변 환경 만족도 변수 11개를 단계적 선택방식으로 주거 전반 만족도와 선형회귀분석 결과 5개의 모형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5.2%로 나타났으며, 자연환경, 집 주변의 소음, 커뮤니티 시설 및 공원, 통학시간에 대한 만족도 변수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그 중 자연환경이 주거환경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통학시간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주변 환경 만족도에 서는 낮은 점수였던 공공기관 접근성은 주거 전반 만족도와는 비유의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중국유학생의 주거 전반 만족도는 주변 환경보다 주택의 만족도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5개변수의 주변 환경 만족도는 25.2%의 설명력을 가지며 5개 변수의 주택 만족도는 65.1%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주택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유학생의 주거 전반 만족도의 설명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3) 주거 문제점

<Table 5> Linar Regression Model of Residential Satisfaction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B	Std. Error	β	
(Constant)	.256	.189		1.350
Dwelling Space Size	.296	.057	.330	5.144***
Space Organization on Floor Plan	.206	.055	.224	3.767***
Kitchen·Toilet·Bathroom Facilities	.211	.052	.253	4.092***
Sunlight Environment	.100	.039	.123	2.564*
Safety of Natural Disaster	.123	.053	.115	2.308*
R			.813	
R ²			.661	
Adjusted R ²			.651	
F-value			70.118***	

Dependent Variable: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P<.001 **P<.01 *P<.05

[Figure 4] Neighborhood Satisfaction Scores

(Table 6) Linear Regression Model of Neighborhood Satisfaction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	t-value
	B	Std. Error	d Coefficients β	
(Constant)	.973	.319		3.050**
Community Facilities & Park	.150	.070	.167	2.149*
Public Institution	.140	.071	.153	1.966
Natural Environment	.209	.065	.225	3.223**
Commuting Hour	.130	.053	.161	2.468*
Outdoor Noise	.142	.054	.176	2.652**
R			.522	
R ²			.272	
Adjusted R ²			.252	
F-value			13.305***	

Dependent Variable: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P<.01 *P<.05

자유 응답방식으로 유학생의 주거에 대한 문제점 및 불만사항을 파악한 결과, 48명의 유학생이 응답하였다. 그 결과 단순한 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음식의 식생활에 대한 불만사항이 9건 제시되었다. 이는 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주거공간에서 식생활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과 결합되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제공되는 음식이 맛이 없어, 중국 음식을 식사 할 수 있길 희망하는

불만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식생활과 연결되어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6건)과 부엌이 없다는 점(3건) 그리고 부엌이 있다고 해도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기가 되지 않는 점이나 거실과 개방되어 있는 점을 불만사항으로 제시하였다(2건). 중국 유학생들은 자신의 식성에 맞는 음식을 할 수 있으면서 환기가 용이한 독립 부엌 그리고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

〈Table 7〉 Needs of Chinese Students for Housing Environment

Needs of Chinese Students for Housing Environment	Cases
Expensive rental cost	6
Tasteless foods or not supply chinese foods	9
Related to kitchen(no kitchen, no ventilation, open to livingroom)	5
No supplied refrigerator	6
Poor sunlight	9
Noise or poor soundproof(washing machine, next room, surroundings)	8
Poor ventilation or Poor indoor air	3
Damp	2
Insect(mosquito, roach)	4
Inconvenient or not good living facilities/system	2
No security or safety	2
Hard to wash laundry in small toilet	1
Hard to understand or improve Korean	2
Others(out of washing machine, too expensive heating cost, control access, impossible to change bedroom, short period of staying in dormitory, hard to clean up hair, poor signal of cell phone, hard to call a taxi, cold in winter)	9

〈Table 8〉 Correlation between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Gender, and Housing Variables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Gender _male	Types of House _dormitory	Ownership _deposit	Moving Experience _yes	Kitchen Arrangement _separate	Kitchen Arrangement _open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1.00						
Gender _male	-.169**	1.00					
Types of House _dormitory	.215**	-.172**	1.00				
Ownership _deposit	-.126*	.112	-.745**	1.00			
Moving Experience _yes	-.080	-.018	-.364**	.303**	1.00		
Kitchen Arrangement _separate	-.057	-.025	-.403**	.237**	.186**	1.00	
Kitchen Arrangement _open	-.103	.121*	-.525**	.497**	.238**	-.297**	1.00

고 등이 중요한 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에 관한 불만사항으로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는 채광 및 일조 관련사항(9건)과 세탁기 작동소리, 옆방, 주변으로 부터의 소음에 대한 불만사항(8건) 그리고 환기·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는 공기환경(3건) 및 방에 습기가 찬다는 점(2건)으로 빛, 음, 공기 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지적하였다. 소음은 앞서 주택 만족도 및 주변 환경 만족도에서도 낮은 점수를 나타낸 점으로 볼 때, 그 불만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모기나 바퀴벌레가 눈에 띄는 점(4건)과 기타의 겨울철에 춥다는 점(1건)의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보건 위생적 측면의 내용으로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며, 유학생들은 주거환경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인식하고 부족한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에서 식생활 및 건강과 관련한 부분 이외에도 비싼 임대료의 불만을 지적한 경우(6건)있었으며, 시설·설비가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2건)과 안전에 대한 점(2건), 화장실이 작아서 빨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1건), 기타로 세탁기의 고장, 비싼 난방비, 기숙사의 경우 출입통제에 대한 불만, 침실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 청소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어의 어려움을 제기하였고, 서로 가까이 생활을 하기

(Table 9) Linar Regression Model of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by Gender and Housing Variables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value
	B	Std. Error		
(Constant)	3.259	.078		43.376***
Types of House_dormitory	.388	.093	.256	4.167***
Gender_male	-.196	.092	-.131	-2.140*
R			.309	
R ²			.095	
Adjusted R ²			.088	
F-value			13.044***	

Dependent Variable: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P<.001 *P<.05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는 생활의 불만사항을 제기하였다.

3. 중국 유학생의 주거 만족도 영향 요인

유학생의 주거만족도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주거만족도의 영향 요인 중 유학생인 점을 생각하여 영향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연령 및 가족변수를 제외하였고, 일반적 측면에서 파악되는 남녀의 성별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학생의 주거는 일반인의 주거와 다르고 대부분이 작은 규모이고 유학기간 중 거주자가 대부분이므로, 거주기간과 규모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주거관련 변수로 주택 유형을 기숙사와 비기숙사, 보증금여부로 본 소유형태, 이사여부, 부엌공간의 분리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독립변수는 질적변수인 명목형이므로 가변수 처리하여 서로간의 상관계수를 파악하였고<Table 8 참조>, 그 결과 주거 만족도와 이사 경험_있음, 부엌구성_분리형, 부엌구성_개방형은 만족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주택 유형_기숙사, 소유형태_보증금 임대, 이사경험_있음과 부엌구성_분리형, 부엌구성_개방형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만족도와 이들 변수와 회귀분석을 한 결과, 모든 변수를 입력한 모형은 7.3%로 설명력이 낮았다. 이에 단계적 선택방식의 회귀분석결과에서 제시된 모형이 8.8%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이를 채택하였고, 성별_남학생과 주택유형_기숙사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참조>. 모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성별 조건이 같다고 볼 때, 주택유형_기숙사는 주택유형_비기숙사에 비

해 평균 .388만큼 더 주거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의 조건이 같다고 볼 때, 성별_남학생은 성별_여학생에 비해 평균 -.196만큼 주거 만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숙사의 주택 유형에서 주거 만족도가 더 높고 여학생의 주거 만족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생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주거 만족도의 설명력을 나타낸 <Table 5>과 <Table 6>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객관적 사실을 나타낸 성별과 주택유형은 주거 만족도의 설명력이 매우 낮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Table 8>의 상관관계에서 볼 때 주택유형_기숙사는 소유형태_보증금 임대, 이사_있음, 부엌구성_분리형, 부엌구성_개방형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주택유형_기숙사의 경우, 보증금이 없는 소유형태, 이사 경험이 없음, 부엌이 없는 형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거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전북대학교의 중국유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주거 현황 및 주거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먼저 일반적 배경 및 주거현황은 80.3%의 학생이 3, 4학년이며, 한국에 약 2.58년 거주하였고, 한 달 생활비로 30-50만원 정도를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기숙사를 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활성화

화가 미진하였는데, 이는 중국어를 사용한 한국 주거정보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주로 기숙사(56.5%)와 원룸(31.3%)이었고, 과반수의 유학생은 현재의 주택에 2011년 이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임대형식이며, 월세로 약 240,000원을 지불하고 있었고, 주택은 주로 학교와는 20분 이내에 위치하였다.

핵심적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첫째, 월 임대료는 유학생들의 30-50만원 생활비(평균 448,000원)에서 24만원을 지불하였다. 학생들에게 임대료는 생활비의 50%이상을 차지하므로 부담이 되는 금액으로 판단된다. 기숙사의 경우도 학기당 일시불이지만, 월별로 계산하면 1인이 약 24만원이므로 이도 다소 부담이 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유학생들의 주거 불만사항에서도 비싼 임대료를 지적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보통(3.32점)이지만, 주거만족도 점수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주거의 내부공간을 보면, 유학생의 78.9%가 2인이 함께 침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기숙사의 경우 2인실 기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원룸인 경우도 상당수가 2인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임대료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룸의 경우 2인 사용으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장실과 욕실은 하나의 공간에 통합된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부엌은 침실과 분리 혹은 개방 그리고 없는 경우가 있었다. 부엌이 없는 경우는 주로 기숙사와 고시원인데, 약 50%의 유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부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불만사항 중 식생활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맛이 다른 유학생의 주거에서 부엌의 공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은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이 많아 환기를 중시하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침실과 개방된 형태의 부엌보다는 분리된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숙사의 경우 개인 부엌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과 등을 구비하거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유학생의 식생활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유학생들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주택과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은 보통이상으로 파악되었고, 주거만족도를 결정짓는 것은 주변 환경(25.2%) 보다 주택

(65.8%)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에서 규모, 평면구조, 부엌·화장실·욕실의 시설, 빛 환경, 채광·채광에 관한 만족 요인이 주거 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주택에 관한 불만사항 중 실내 환경 즉, 일조·채광의 빛 환경 및 소음, 방음의 음환경, 환기, 통풍의 공기환경을 지적하였다. 불만사항과 주거 만족도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유학생은 주택에서 공통적으로 빛 환경을 지적하여 이에 대해 중요하게 검토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택 만족도가 가장 낮고 불만이 제시된 음 환경 역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빛과 음환경에 대한 결과는 인간의 건강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주거에서 지켜져야 하는 빛, 음, 공기, 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학생 주거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재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그 외 주변 환경 만족 요인 중에는 자연환경, 커뮤니티 공공시설 및 공원, 소음, 통학시간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기에서도 음 환경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째,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자의 성별 및 주거특성 요인을 파악한 결과, 성별_남학생과 주택유형_기숙사의 변수가 주거 만족도를 8.8%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낮은 주거만족도를 기숙사는 비 기숙사보다 높은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학생 주거에서 남녀 성별과 기숙사/비기숙사의 주택유형으로 공간계획을 세분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나 원룸이 남녀의 성별을 고려한 공간계획이 아니라는 점은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원룸 주택업자들에게 새로운 주택상품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대학교 주변 중국인 유학생의 거주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인의 생활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 원룸이나 고시원의 주거 건물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거 건물을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2-3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으면서 기존 원룸주택에서 한계인 부엌 및 부가 공간들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상품으로 제시한다면 중국 유학생 대상의 주택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제언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의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중국 유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눈덩이 표집을 하여 전북대학교의 중국 유학생들에게 모두 공개 접근되지 않아서 수집된 자료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의 중국유학생 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유학생으로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유학생에게 주거는 식생활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룸 뿐 아니라 기숙사에서도 음식을 해결할 수 있는 요구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중국 유학생들의 식생활 패턴에 따라 요구되는 학생주거의 부엌 공간 및 주거 공간 선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 중국 유학생의 주거공간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 및 면접을 통한 생활조사로 주거실태 및 식생활과 주거공간사용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유학생들은 현재 생활하는 주거공간의 빛, 음, 공기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주거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물리적 측정 및 주관적 평가를 토대로 한국 학생과는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중국유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내 환경 기준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거 만족도의 회귀모델을 제시하고, 주관적인 만족 요인, 객관적인 성별 및 주택유형 요인의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주거 만족도 자체가 주관적 측정이었으므로, 주관적 만족 요인의 주거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객관적 요인의 주거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객관적 요인의 영향은 공간을 계획하는 관점에서 고려할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거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주거 만족도 이외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객관적 요인과 주거 만족도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성별 및 주택유형에 따른 세부디자인 요구파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근거한 디자인 대안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중국 유학생, 주거, 주거 만족도, 주택 만족도, 주변 환경 만족도

REFERENCES

Chow, K. & Healey, M. (2008). Place attachment and place

identity: First-year undergraduates making the transition from home to univers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 362-372.

Choi, S. & Chung, J. (2008). A Study on the Post Occupancy Evaluation by the Residence Environment Factors in the Low-Rise Block Housing. *Architectural Research*, 24(12), 111-121.

Cui, J. (2008). A Study on the School and Social Life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0(1), 115-138.

Delgadillo, L. & Erickson, L. (2006). Off-Campus Student Housing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8(4), 6-9.

Elsinga, M. & Hoekstra, J. (2005). Homeownership and housing satisfaction.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0, 401-424.

Fang, Y. (2006). Residential Satisfaction, Moving Intention and Moving Behaviours: A Study of Redeveloped Neighborhoods in Inner-City Beijing. *Housing Studies*, 21(5), 671-694.

Fleury-Bahi, G., Félonneau, M., & Marchand, D. (2008). Process of Place Identificatio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40(5), 669-682.

Ha, J. H. (2008). A Qualitative Study of Chinese Students' Adaptation to Korean College Lif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logy*, 20(2), 473-496.

Ha, M., Yang, S., Lee, S., & Lee, H. (2011). A Study on the types and Interior Space Planning of Small House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0(4), 163-173.

Han, J. & Yoon, C. (2011). Unit Planning of Single Undergraduate Student's Rental Housing Corresponding to their Life Pattern and Housing Need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2(4), 92-102.

Jang, H. (2010). New Town Environment Evaluation by Family Life-Cycles: A Case Study on Bundang. *Architectural Research*, 26(4), 45-56.

Jang, H. (2008). Factor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Built Environment by Using Them: Focused on

- Evaluation by Sub-groups Classified Residents' Characteristics on Middle and Small Size Apartment in Seoul. *Architectural Research*, 24(5), 11-21.
- Kang, H. & Kim, M. (2009). Priority of Residential Choice and Housing Satisfaction among Studio-type Multi-family Housing Residents in the City of Gwangju.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1(1), 29-32.
- Kim, E. & Seo, C. (2008). A Study on Theoretical Approach for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Index Based on the Apartment Housing.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7(1), 50-59.
- Kim, M. & Jeong, M. (2003). Housing Values and Housing Satisf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4(3), 9-18.
- Kim, M., Jang, E., Song, A., Ryu, J., & Choi, J. (2010).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Small Housing Complex and their Preferences for One Person Household by University Student. *2010 Proceedings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 61-66.
- Kim, Y. (1988). An empirical study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with special to the apartment households in Seoul metropolitan a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 Lee, H. (1985). A Study on the Systematic Evaluation Methodology of the Dwelling Environ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Lee, S. (2000). A Study on the Student Housing in the Regional University: Focused on the University at Hongsung Kun, Chungnam.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5, 142-148.
- Park, E. (2007). College Students of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One-Ro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Park, H. (2010). College Life Satisfac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Students Attending a Korean University. *Ewha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41(3), 1-27.
- Pitkethly, A. & Prosser, M. (2001). The first year experience project: a model for university-wide change.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20(2), 185-198.
- Sinai, I. (2001). Moving or Improving: Housing Adjustment Choice in Kumasi, Ghana. *Housing Studies*, 16(1), 97-114.
- Yang, S., & Oh, C. (1996). The Effects of Housing Values on Housing Satisfac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7(2), 1-7.